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40점, [문항 2]가 6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 테이프·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각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5.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6.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조건>에 따라 논하십시오. (500자±50자, 40점)

< 다 음 >

주장 1: SNS의 확산은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에 기여한다.

주장 2: SNS의 확산은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을 저해한다.

< 조 건 >

1. 제시문 (마)의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자신이 택한 주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를 하나 선택하고, 그 국가를 선택한 이유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2. 제시문 (마)의 <자료 3>과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분석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항 2]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문항 1]에서 택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후, 이를 재반박하십시오. (1,000자±100자, 60점)

< 조 건 >

1. 제시문 (나)~(라) 가운데 두 개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반론의 논거 역시 제시문 (나)~(라) 중 두 개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3. 재반박에서는 [문항 1]에서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정치 과정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근대 이전에는 정치 과정이 소수 지배자들의 지시와 통제를 통한 통치 방식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점차 증가하면서 정치 과정에서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치적 합의가 잘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가 강할수록,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공식·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정치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관계성과 연결성이 강조된다.

퍼트남(R. Putnam)은 협력적 행동을 통해 정치 과정의 참여와 효율을 증진시키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의 일체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하였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는 그 적용 범위에 따라 가족 및 친구 등 자신과 가까운 지인에 대한 ‘특정화된 신뢰’와 낯선 사람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로 세분될 수 있다. 특정화된 신뢰는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낯선 이들에 대한 신뢰로서 개방적인 특성을 지닌다. 네트워크도 신뢰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속형 네트워크’와 ‘연결형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다. 결속형 네트워크는 연줄과 인맥 등으로 맺어진 관계로, 동질적 속성을 지닌 개인들 간의 결속력이 강해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고 내부지향적이다. 반면,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 약할지라도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연결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의견 및 태도에 대해 포용적이고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결속형 네트워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연결형 네트워크는 참여와 연대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활용

(나) 시사주간지 <타임>은 평범한 시민들이 유튜브와 같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제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다며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당신’을 뜻하는 ‘YOU’를 선정했다. 유튜브와 같은 SNS의 발달에 따라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사이버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오프라인과 구분되는, SNS가 가진 네트워크의 성격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SNS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대상과 일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또한 SNS 상에서는 상호작용이 채팅과 같은 일대일 방식으로도, 콘텐츠 게시와 같은 일대다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함께 접속하는 동시적 상호작용과 함께, 시차를 두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비동시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하여 장기간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SNS를 통해 여러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결국 비슷한 생각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결속력을 강화할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패리저(E. Pariser)는 그의 저서 『생각 조정자들』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는 물론 정치 성향까지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개인의 생각이 제한되는 현상을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필터 버블은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정보중개자의 알고리즘 특성과 관련된다. 구글의 검색 기능, 페이스북의 게시글과 친구 추천 기능, 유튜브의 추천 영상 제공 등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결과물이다.

고등학교 『사회』, 『사회·문화』 활용

(다) 영국의 주요 신문인 <가디언>의 역사는 1819년 8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테일러(J. Taylor) 기자는 맨체스터의 성 피터 광장에 운집한 6만 명의 군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군대가 출동하여 집회를 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위대 속에 있었던 테일러 기자는 런던 시민들에게 이 학살의 진상을 알리고자 서둘러 야간 운송 편으로 기사를 보냈고, 다음날 일간지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이는 투표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테일러는 이 경험으로 <가디언>의 전신인 <맨체스터 가디언> 신문을 창간하였고, 이후 1832년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신문은 조선이 망해가는 격동의 시기에 등장하였다. 1883년 <한성순보>가 처음 창간되었지만 실제로는 관보에 가까운 한문신문으로 갑신정변 직후에 폐간되었다. 1896년에는 최초의 한글 일간지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이후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과 같은 민간 신문이 창간되었다. 이들 애국계몽을 표방한 민간지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 침략 현실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장지연은 '이날에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황성신문>에 게재하였고, 이로 인해 <황성신문>은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장지연은 투옥되었다. 신채호도 <황성신문>의 논설 기자로 활동하며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을 제일 먼저 소개하였고, 사람들에게 널리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까지 항일언론의 선봉에 섰던 신문으로 신채호는 여기서도 주필을 맡았다. 이 두 신문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 후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고등학교 『세계사』, 『한국사』 활용

(라) 텔레비전이 보급된 이후 오랫동안 미국인은 세 곳의 거대 방송국과 세 곳의 주요 신문을 통해 뉴스를 얻었다. 그 언론 매체 중 어느 곳도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지 않았고 정보를 편향되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거의 동일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었던 셈이다. 하지만 한 때 큰 시장을 형성했던 매체들이 최근 들어 쇠락한 반면,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은 부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자신이 지닌 견해에 따라 정보의 출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케이블 텔레비전에는 477개의 채널이 있음에도 자신의 현재 관심사와 생각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며, 달갑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는다. 그 결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된다.

이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정치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즘 대부분의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민주당원이건 공화당원이건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뉴스를 게시하고 다른 견해를 올리는 사람을 친구 명단에서 지워버린다. 또한 시시때때로 페이스북을 점검하여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는 온라인 뉴스를 확인하고, 그 뉴스 전달자를 친구로 추가한다. 결국 자신과 견해를 공유하는 친구들만 늘어나고, 자신에게는 여과된 정보만 전달된다. 그 결과 정치가들도 다른 사람들이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유권자들도 내가 선택한 의원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는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고등학교 『사회』, 『법과 정치』 활용

(마) 다음의 자료는 '복지 예산 감축 또는 확대' 쟁점에 대하여 A, B, C, D 네 국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SNS가 확산되기 이전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 1>은 각각의 시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사회적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활동(기사 검색, 주변 사람과의 대화, 청원 서명, 집회 참여) 중 몇 가지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다. <자료 2>는 이 쟁점에 대한 입장을 '0(매우 감축)부터 10(매우 확대)'까지의 11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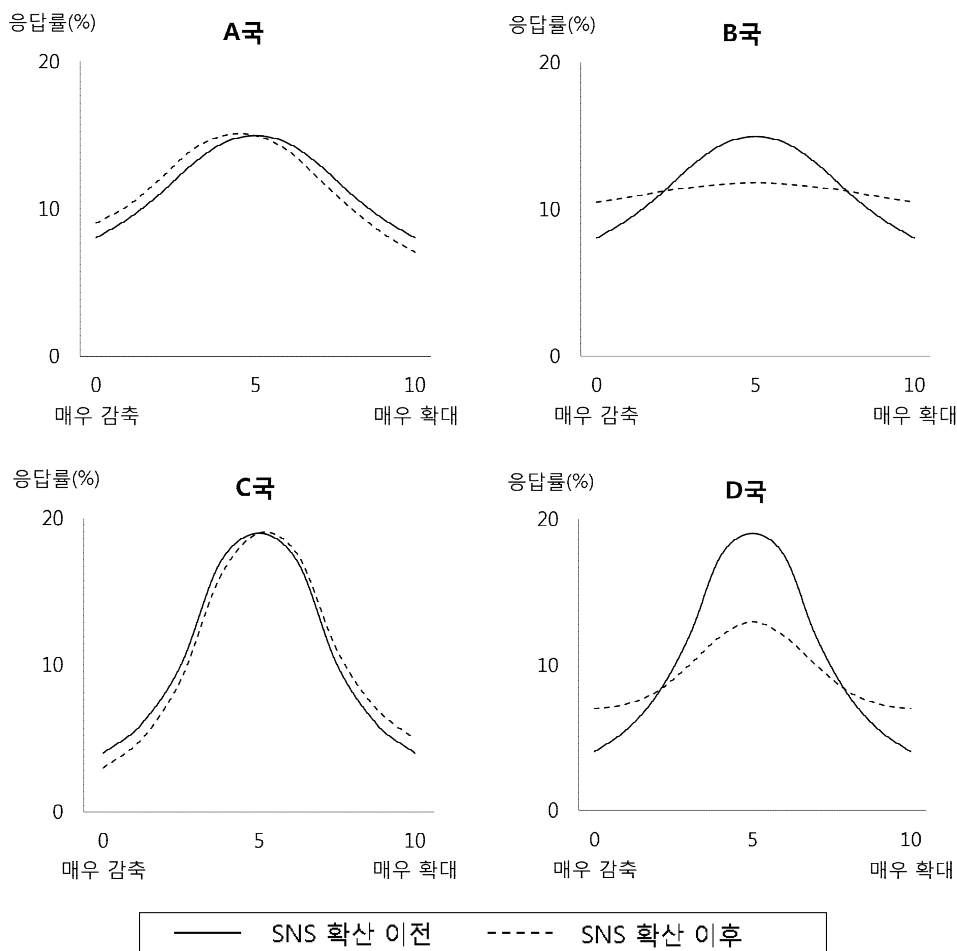
<자료 1> 국가별 사회적 참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개)

국가	SNS 확산 이전	SNS 확산 이후
A국	2.5	2.5
B국	2.4	2.4
C국	0.8	2.2
D국	0.6	2.1

\* 표 안의 값은 응답자들의 평균값임.

<자료 2> 국가별 복지 예산 입장에 대한 응답 결과



\* 그래프는 시각적 편의상 곡선으로 처리하였음.

<자료 3>은 SNS가 확산되기 직전 시점에 측정한 네 국가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나타낸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동문회와 같은 동질적 모임에 몇 개 가입해 있습니까?”, (2) “환경단체와 같은 공익적 모임에 몇 개 가입해 있습니까?”, (3) “가족과 친지·친구 등 나와 가까운 지인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그렇다, 0: 아니다), (4) “낯선 사람을 포함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그렇다, 0: 아니다)

**<자료 3> 국가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응답 결과**

국가	(1) 동질적 모임 가입	(2) 공익적 모임 가입	(3) 지인에 대한 신뢰	(4) 낯선 이에 대한 신뢰
A국	3.3개	3.4개	0.87	0.85
B국	3.5개	0.7개	0.83	0.32
C국	1.6개	3.2개	0.45	0.81
D국	1.2개	0.7개	0.31	0.28

\* 표 안의 값은 응답자들의 평균값임.

※ <자료 1> ~ <자료 3>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항은, 네 국가가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고등학교 『사회』, 『법과 정치』 활용











